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선원은 '물리' 순간부터 불자 네 티끈을 즐겁게 하는 곳이다. 다양한 메뉴를 따라잡기 위해 마우스를 활발하게 이동하고, 그 속에 담긴 알찬 정보를 하나 하나 읽을 때 적잖은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이 홈페이지에는 동영상·쌍방향 통신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이 있는 게 아니다. 텍스트



점단 디자인

**인터넷시대 막차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들기**

브와 사진 등과 같은 2차원 정보만 있는 단순한 홈페이지일 뿐이다. 비결은 간단하다. 그것은 선원의 새로운 소식을 소상히 알려주고, 샌프란시스코 선원 특유의 향기를 내뿜는 데 있다.

그러나 국내 사찰·선원 등의 홈페이지는 샌프란시스코 선원과는 아주 다르다. 이들 홈페이지는 지나치게 '첨단 기술'만을 선호하고 '형식'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홈페이지를 사찰이나 선원에서 직접 만들지 않고, 대부분 특정 단체에 의뢰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 한 곳에서 대량 생산한다는 것은 당연히 '형식'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이 달의 법문' '가상 사찰' '사찰 문화재' 등의 메뉴로 구성된 홈페이지 예제 파일을 만들어 놓고, 해당 정보만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특색 있는 한국 사찰·선원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위해, 교계는 우선 정보화를 '어렵고 거대한' 일로 여기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사실 정보화는 대중적 관심이 필수적이다. 이 말은 정보화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쉽고 작은 일'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특색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화의 올바른 개념을 이해하고, 사찰·선원 스스로 자신의 홈페이지를 제작·운영하는데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또한 메뉴를 어떻게 다양화할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떤 메뉴를 특색 있게 제공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수한 사이트는 그곳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양보다 '특화성' '참신성' 등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오종욱 기자(gobaouu@buddhapia.com)

**대한불교예술원**

- 단점·특자 상담·수업·수리 전문
- 목공예·염·대용·단형·명화 불사

☎ 02)930-1681 / 011)336-5200

## 종교가진 청소년 84% “초등학교때 종교선택”

조계종, 청소년 3123명 '종교의식' 조사

개신교 26.6%-불교 26.1%-천주교 10.7% 순  
 무종교 청소년 천주교-불교-기독교 순 선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83.7%가 초등학교 때 종교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포교가 청소년 불자 양성의 지름길임이 밝혀졌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어린이포교에 집중하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 같은 결과는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연)이 청소년포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128개 교를 무작위로 선정, 3,123명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지난 해 6~7월 실시한 청소년 종교의식 조사에서 드러났다.

7월 27일 발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신령기간은 10년 이상(45.2%), 9~6년(20.2%), 3~5년(18.3%) 등의 순으로 평균연령이 16.6세임을 감안하면 어릴 때부터 사찰이나 교회에 나간 것이 청소년기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종교를 믿는 이유로는 불교와 천주교의 청소년들이 '가족이 종교를 믿어서'(53.4%, 33.1%)와 정신적 안정(21.4%, 28.2%)이라고 응답했으며, 개신교 청소년들은 정신적 안정(20.9%)과 영생(19.0%)이라고 답했다. 종교선택에 영향을 미친 권유자로는 천주교는 부모(66.8%), 기독교는 친구(18.9%), 불교는 스스로 선택(25.3%)한 비중이 많았다.

종교별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무종교인 34.9%, 개신교 26.6%, 불교 23.1%, 천주교 10.7%의 순으로 드러났으나, 불자청소년 가운데 사찰에 가지 않는다는 응답도 49%에 이르는 것으로 볼 때 상당수 청소년 불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불교청소년들의 종교활동이 저조한 이유로는 각 사찰에서 청소년회를 운영하는 곳이 타종교에 비해 많지 않고, 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기 때문



**참선삼매에 든 문수동자들**  
 본사가 주최하고 선재이벤트가 진행한 '제3회 부디피아 어린이캠프'가 7월 20~22일 홍주사, 목어박물관, 에버랜드 등에서 열렸다. 163명의 새싹들이 참가한 이번 캠프는 참선·시경·찬불가 배우기 등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여름 대낮에 졸음을 참아가며 무더위에도 이렇듯없이 참선삼매에 든 어린이들의 모습이 영락없는 문수동자들이다. <관련 기사·화보 14면>  
 홍주사·김주일 기자

## 이 총리 “지리산담 백지화 검토”

지리산권 7개 자치단체장 '담 반대' 표명

수자원정책 결정의 최고책임자인 이한중 국무총리가 "지리산담 건설 백지화를 신중히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혀, 지리산 살리기 운동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 총리는 7월27일 '지리산 살리기·담백지와 발발교연대' 상임대표 수경선님과 공동대표 박창기 중앙신도회장, '달리리'라 명명된 '발발교연대' 상임대표 법장스님 등이 참여한 국무총리 집무실을 방문, '지리산담 건설 백지화 백지화를 위한 청원서'를 전달하고 환담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자리에서 수경선님은 "지리산의 역사성, 상징성, 생태계 보호 측면에서 지리산담 건설은 재검토해야 한다"며 "개발·정치논리를 떠나 수질 개선 위

주의 통합적인 수자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지역주민과 종교계,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지리산담 건설계획을 신중히 재검토하겠다"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의 위원장 자격으로 친환경적인 수자원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리산권의 7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남원시의회의원들도 지리산담 건설과 관련, 처음으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남 구례·곡성군과 전북 남원시, 경남 산청·함양군 등 지리산권 7개 시·군 자치단체장은 지난 7월 19일 남원시에서 모임을 갖고 "담건설은 백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하고 특히 인근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 결정해야 한다"며 완곡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남원시의회의원 22명도 7월22일 '지리산담 건설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는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는 억지 논리를 철회하고 1500만명의 생생터전이고, 컷골인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김재경 기자

## 8·15 남북불교 동시법회 '연다'

중단협 제안, 조불련 화답... 오후 3시 일제 타종

남과 북의 모든 사찰에서 민족의 자주와 단합,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8·15 동시법회와 타종식을 15일 오후 3시 일제히 봉행한다.

북한의 조선불교연맹(조불련)은 "조국광복 55돌이 되는 올해 8·15에 특정한 사찰이 아니라 북과 남의 모든 사찰에서 남북불교도 동시법회를 가지자"고 7월 24일 중단협의회에 알리고 박태화 위원장의 인사말과 공동발원문 초안을 보냈다.

중단협의회는 조불련이 8·15 동시법회에 화답예우에 따라 △우리측은 중단협의회 주

최로 15일 오후3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각 종단대표와 신도 등 1천여명이 동시 법회를 봉행하며 △모든 사찰에서 15일 일제히 법회를 봉행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우므로 평화통일기원 타종식으로 대체하되 △진달래이 백종이므로 백종법회 때 공동발원문을 낭독하는 방안을 마련, 모든 사찰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공동발원문 요지 2면>

중단협의회는 지난 11월 8·15 동시법회를 봉행하고자 조

불련에 제안했다. 조불련이 이 제안에 동의함에 따라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8·15 남북 동시법회를 봉행한다.

한편 조불련은 남북불교 통일토론회와 관련, "토론회를 제3국에서 개최하자는 귀족의 제의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연구하여 보고 연계를 가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단협의회는 한 관계자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자는 뜻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풀이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다음주 신문 쉽니다**

연꽃잎 제트특어(특어 제122168호)/팔각등 실용신인(등록 제098634호)의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 사찰 등(燈) 장엄불사 -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팔모주름등 (핑크)**

- 팔모주름등(빨강)
- 팔모주름등(연두)
- 팔모주름등(노랑)
- 원통등
- 조립팔모등
- 팔모조림등
- 팔모주름등 보관형태
- 육각등
- 차결이등
- 엷가등

**찬덕의 연일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공단(비단) 연일등 원성곡점

비단연일 → 등통 → 완성연일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2-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